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름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현대불교

법공양판 18~19 면
방송·연예 20면

면학기풍 어린 첫 비구니 강원

내일의 아라한들 ①

젊은 학승 탐방 **동학사 승가대**

지난 21일 동학사 강당에서는 4년간 경학을 배운 비구니 스님들의 졸업식이 봉행됐다. 지난해 졸업식을 갖지 못한 31회 스님들과 올해 졸업하는 32회 스님들이 강원 생활을 마감하고 각자의 수행처로 가는 날이었다.

"수행자에게는 졸업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로써 다시 초발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연륜, 대강백 산실

강주 일연스님의 훈화와 각계의 격려사, 후배스님들의 송사, 졸업하는 스님들의 답사, 그리고 박수 속에 전달되는 꽃가지 선물 …한 시간 동안의 졸업식이 끝나고 스님들은 서울로 광장도로 정리도로 광적한 바람을 헤고 떠났다. 그렇게 동학사 승가대학은 또 하나의 연륜을 쌓으며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의 면모를 지키고 있었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1956년 2월 경봉스님이 강석을 열고 학인들 모아 첫 대문을 열었다.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당시인지 첫 졸업생은 63년에 단 한명이 배출됐다. 이후 65년까지 9명이 졸업하여 4회의 연륜을 쌓았고 67년부터 84년까지는 2백39명의 비구니스님이 졸업 20회의 나이를 갖췄다. 이 동안의 강주는 호경스님이었으며 뒤를 이어 85년부터 94년까지 2백4명의 졸업생을 일초스님이 배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일연스님이 강주자리를 맡아 32회 졸업생 스님들을 졸업시키게 된다. 38년의 역사동안 총 4백75명의 비구니스님이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경학을 배워 이력종장의 기품을 다지고 떠난 셈이다.

○ 동학사승가대학은 2월21일 31·32회 합동 졸업식을 가졌다.

56년 개원…38년간 475명의 이력종장 배출

내외전 균형있는 교육…도서관 건립 발원

물론 56년 이전까지 동학사 강원에서는 많은 결승들이 경전을 읽고 논강을 했다. 경허 선사가 이곳에서 20대에 강석의 창호를 열은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동학사 승가대학이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었던 지금에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 연 5개 비구니 승가대학(동학사, 운문사, 청암사, 봉녕사, 삼선포교원) 중 삼선포교원을 제외한 4곳에의 승가대학 강주, 강사를 맡은 강백들이 모두 동학사 출신이다. 운문사의 강주(학장) 명성스님, 봉녕사의 묘업, 대우스님, 청암사의 지행스님, 동학사의 일연스님이 그 분들이다.

이렇게 볼때 동학사 승가대학은 우리나라 대강백의 산실로서의 밝은 법등이 면면히 타고 있는 곳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전·신학문 함께 배워

동학사 승가대학은 올해 1학년(사미과) 치문반에 50명의 스님을 새 식구로 맞았다. 사집과는 33명이 사교과는 22명이 대교과는 19명이 올 한해동안 경학을 탐구하게 된다. 강의 과목은 내전의 경우 전통 강원의 체제대로 치문, 서장, 능엄경, 금강경을 학년 단위로 배운다. 물론 교습방법도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논강이다. 논강법이란 학인 스스로가 그날 정해진 본강을 공부해 와서 현호 추첨이 되면 자신이 공부해 온 내용을 대중에게 강의하고 그 과정에서 보충하거나 잘못된 것은 강사 스님이 교정해 주는 방법이다.

이같이 과학적인 교습법으로 진행되는 내전 외에도 동학사 승가대학은 일본어 한국불교사(4학년) 중국불교사(3학년) 인도불교사(2학년) 불교학개론(1학년)을 더 공부한다. 옛날 같으면 외전이라 했을 이들 과목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별도로 외전 취급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동학사 승가대학은 6년내내 일본어를 가르치고 사문자 뜻풀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대중 포교의 역량을 발휘해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전이건 외전이건 수행자가 갖춰야할 것이라면 배워야지요. 요즘같이 열린 세상에 나가 수행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안공부 바깥공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강 정우스님의 얘기는 강원이 승가대학으로 명칭을 바꾼 것과 학사일정과 교육과목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도 남는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격월간으로 "동학"지(誌)도 발간하고 있다. 학인들이 직접 만드는 이 격월간지는 큰스님의 법어와 각종 논문, 칼럼, 소설, 화보, 에세이등을 담고 있다. 잔잔한 글의 맛과 무게 있는 논문들 그리고 재미있는 연재소설들로 짜여지는 "동학"지는 승가는 물론 재가자들까지 함께 읽는 종합 포교지다. 현재는 수완스님이 주간을 해결스님이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화경, 성민, 수민, 일곤, 승연스님이 제작에 동참해 통권32호까지 내놓았다.

지난해 강주로 취임한 일연스님은 "동학사를 관광사찰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어디까지나 기풍있는 수행, 교육 도량이라는 인식을 제고 시키기 위해 학인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 학인들의 면학 열의를 뒷받침 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 대웅전 좌측에 자리한 동학사승가대학 전경.

공주=임연태 기자

"고통받는 중생의 손발 되겠어요"

졸업하는 스님과 후배 학인들, 내외 동참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특별장학금을 받은 현공스님에게 지난 21일의 동학사승가대학 졸업식은 스스로를 새로이 태어나게 한 계기였다.

동학사 승가대 졸업생 **현공 스님**

현공스님은 이제 동학사에서의 4년 공부를 마음의 바탕에 갈무리해두고 3월이면 다시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복지학과에 응시 전체 차석이란 영예까지 안은 스님은 "부끄럽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내소사 지장암에서 입지스님 문하에 득도한 현공스님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싶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수행자인 이상 이웃의 고통을 '남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스님은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이 사회의 아픔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며 "동학사에서 배운 내·외전의 자식들이 반드시 포교현장에서의 승고한 지혜로 재확인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거기다 중앙승가대에서 배울 복지학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의 소신 있는 수행생활로 보다 올바른 수행자가 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한국불교근대 강맥

한영·진응·금봉 3대 강백 '명성 자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 불교계의 대강백으로는 한영(漢永), 진응(震應) 금봉(錦峰) 스님이 꼽혔다. 이들을 흔히 3대 강백이라 불렀는데 모두 강맥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진응스님과 한영스님을 앞세워 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북(北)한영 남(南)진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영스님의 명성이 서울 개운사에서 진응 스님의 명성이 천은사 화엄사등에서 크게 떨쳐진데서 비롯된 말이다.

한영스님은 문하(門下) 고봉(高峰) 운기(雲起) 은상(銀性) 청담(靑潭)스님에게 강맥을 전했으며 다시 운허스님은 지관, 월운, 묘업스님에게 고봉스님은 고산, 우룡스님에게 운기스님은 혜남 제선스님에게 은성스님은 종윤, 성업스님에게 각각 맥을 전했다. 또 묘업스님은 일연스님에게 고산스님은 보광, 도리천스님에게 강맥을 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진응스님은 성능스님에게 강맥을 전했으며 성능스님은 다시 명성스님에게 맥을 이었다. 이로써 근대 강백이 한영스님과 진응스님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으며 3대 강백 중의 한명이었던 금봉스님은 전강제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영스님:1870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해 19세때 위봉사로 출가했다.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당 처영(雪乳堂 處英)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구암사 대원사 금산사 백양사 해인사 범주사 화엄사 범어사 안변 석왕사등에서 문을 열고 후학을 지도했다.

특히 1914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개당(開堂)하고 학인들을 가르쳤는데 늘 1백명이 넘는 남자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다.

▲진응스님:1872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15세때 화엄사로 출가했다. 화엄사 선암사 강원등을 돌며 경학을 탐구했으며 24세때 화엄사 응암(應庵)스님으로부터 전강법(傳講)했다. 후에 해인사 강사를 지낸 성능스님에게 강맥을 이었다.

▲금봉스님:3대 강백중의 한 명이었던 금봉스님은 186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14세에 봉도사로 출가 사문스님 아래 득도했다. 18년동안 전국의 유명 강백들을 찾아 다니며 이력을 마치고 1893년 경운 원기(擎雲元奇)스님의 법을 이어 받았다.

동학사 강주

경봉-호경-일초-일연스님

▲경봉스님(鏡峰·1885~1969):1911년 27세에 건봉사에서 연호(蓮湖)화상에게 출가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설파스님에 강화를 받아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에 몰두 이력종장의 면모를 갖췄다. 1922년 강백이 되어 유점사, 건봉사에서 불교전문강원의 조실로 있었다. 광복후 건봉사 주지로 있다가 남으로 내려와 신도안에 은거하던중 50년 동학사 주지 대한스님의 청으로 동학사에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을 열고 강주가 됐다.

▲호경스님(琥鏡):통도사에서 강사를 지냈으며 1967년부터 84년까지 동학사에 머물며 비구니스님들을 가르쳤다. 일엽(一葉) 한주(漢珠) 일초(一超) 보광(普光) 수정 혜성(慧性)스님에게 강맥을 전했다.

▲일초스님(一超·1943~):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스님은 71년에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이듬해부터 동학사에서 강사, 강주(승가대학장)를 지냈다. 지난해 동학사 주지직과 강주직을 마치고 포교와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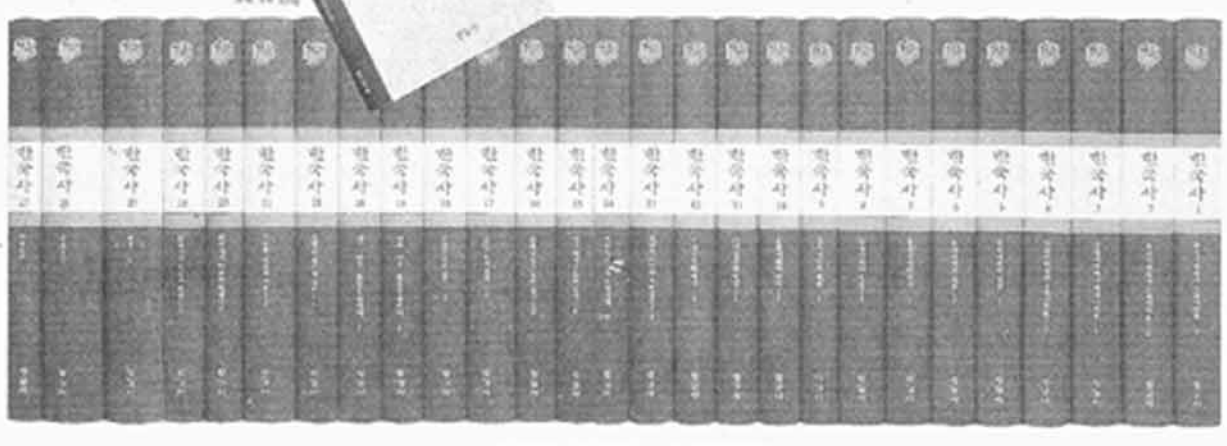
▲일연스님(1947~):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65년 충남 논산 융화사에서 득도 6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70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 승가학과 등을 나왔으며 90년에 수원 봉녕사에서 묘업(妙業)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다. 봉녕사 강사를 거쳐 현재 동학사 승가대학장(강주)을 맡고 있다.

한국사 전27권

한길사의 한국사는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국사의 참모습을 담아낸 당신 곁의 역사 정보도서관

8년 동안 159명의 역사학자와 50명의 기획·편집진들이 3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만든 한길사의 『한국사』는 민족의 기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민족사의 힘찬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민족사관으로 기획·집필된 한길사의 『한국사』는 기왕의 식민사관 사서들이나 관한 사서들의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CD 전 24매 포함

-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 한국인의 꿋꿋한 정신을 담아냈다.
- 민족출판문화에 우뚝 솟은 이정표를 세웠다.
- 21세기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담았다.

(주) 한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성과
『한국사』가 불교계 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스승의 생각하는 가람가족에서는 그간 『한국사』 구입의 애로점을 파소하고, 불자님들의 가슴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국사』 관매·보급의 전점이 있습니다.

책 27권·CD 24장 → 값 850,000원
▶스님, 불자님들의 구입문의는
(02) 720-5121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구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하신 분께 『한국사』 관련 안내자료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기획기획대표 : 이주영 합장

한국사 편집위원
김민남 고려대 교수·한국사
김남식 북한문제연구가
김병하 성균관대 교수·한국사
김태영 경희대 교수·한국사
박종기 국민대 교수·한국사
박한식 조선대 교수·경제학
안병직 서울대 교수·한국경제사
정석종 성균관대 교수·한국사
정창렬 한양대 교수·한국사
조 광 고려대 교수·한국사
최광식 효성여대 교수·한국사
최길성 고려대 교수·정치학

한국사 책 27권의 내용
제 1권 한국사회에서 고대사회로-1
제 2권 한국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제 3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제 4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2
제 5권 중세사회의 성립-1
제 6권 중세사회의 성립-2
제 7권 중세사회의 굴전-1
제 8권 중세사회의 굴전-2
제 9권 중세사회의 해체-1
제10권 중세사회의 해체-2
제11권 근대민족의 형성-1
제12권 근대민족의 형성-2
제13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제14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2
제15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1
제16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2
제17권 현대국가의 성립-1
제18권 현대국가의 성립-2
제19권 사상·민족·종교를 향하여-1
제20권 사상·민족·종교를 향하여-2
제21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1
제22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2
제23권 한국사의 새로운 방법-1
제24권 한국사의 새로운 방법-2
제25권 연표-1
제26권 연표-2
제27권 찾아보기